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와 도덕은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회적 규범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통상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개념인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일단 발현 주체나 불변성으로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없다. 윤리와 도덕 모두 개인의 내면에서 나타나며, 시간과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현시키는 주체, 즉, 누가 만든 규범인지에서 도덕과 윤리를 구분할 수 있다. 도덕은 자기 자신이 정한 행동규범인 반면, 윤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한 행동규범이다. 가령, 불륜을 하면 안된다고 아는 것은 윤리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불륜을 하지 않는것은 도덕이다. 도덕과 윤리와 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법률도 두 개념과 구분될 수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비롯된 강제성이다. 도덕과 윤리는 자율적인 반면, 법률은 사회가 만든 규칙으로, 강제적이며 타율적이다. 법률을 강압적인 윤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적으로 가장 큰 변환점인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을 ㉡갖는 6개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중 인공지능은 정보기술의 가장 중심이며, 현대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불리기도 하며,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은 크게 스스로 주체가 있는 강인공지능과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인공지능으로 나뉜다. 강인공지능은 인공일반지능 또는 인공의식이라고도 하며 의지와 주체적 의식이 있지만, 약인공지능은 의지가 없다. 또한, 강인공지능에는 감정을 ㉢넣을 수 있으며, 특정 임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은 1980년도에 철학자 존 설이 제시한 개념으로, 그가 ‘중국어 방’ 논변을 전개하면서 언급되었다. 영어만 할 수 있는사람이 중국어 질답 매뉴얼만 갖고도 중국어에 유창한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중국어 방’의 주요 논변이다. ㉣이런 논변은 인공지능의 자의식 구분을 위한 간단한 질문에 사람인 것처럼 대답하여 심사위원을 속여야하는 튜링테스트를 반박하며 제시되었다. ‘중국어 방’ 논변에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실제 자의식이 없어도 미리 입력한 답안으로 심사위원을 속일 수 있다고 하며, 약인공지능만으로도 자의식을 갖는 강인공지능이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 방’ 논변은 인간 역시 언어를 모르고, 일정한 메뉴얼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반박에 부딪혔다. 이러한 반박은 강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고, 인간과 얼마나 유사한지가 그 두 개념을 구분하는 척도라고 하였다.

인간과의 유사성으로 두 인공지능을 구분하면 경계선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윤리의 고려사항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전자는 독립의 여부로 극복가능하지만, 후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강인공지능이 단순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윤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건 자명하다. 강인공지능이 윤리에 입각해야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근거로 지지된다. 첫째, 강인공지능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의도는 사회의 지향에 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강인공지능에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도덕은 존재하며, 그런 도덕이 윤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약인공지능도 윤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인 강인공지능 역시 윤리의 지배를 받아야하는 입장이다. 공정성을 위해 약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편파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강인공지능의 발전이 아주 느리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강인공지능은 곤충의 지능수준으로, 아직 자의식에 대해 논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자의식이 없는 동물 역시 동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동물은 1822년에 동물보호법이 ㉥정해진 후 동물의 권리가 꾸준히 보호되며, 동물을 해하면안된다는 윤리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강압적인 윤리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동물정도의 지능을 갖는 인공지능에 동물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튜링테스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윤리의 사례를 분류한 후 제4차혁명에서의 윤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윤리를 유사 개념과 비교한 후 인공지능을 구분하며 이를 반영하는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윤리의 유형을 분류한 후 산업혁명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윤리와 법을 비교한 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리적 성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법률이 될 수 없다.
- ②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
- ③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이 존재한다.
- ④ 사회적 규범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불변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⑤ 튜링테스트의 반례는 약인공지능에 해당한다.

3. 윗글을 참고할 때, ㉠에서 제시된 논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역시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채로 사용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② 인공지능 역시 사회의 규범인 윤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 ③ 동물정도 되는 수준인 강인공지능은 주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은 인간과의 유사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 ⑤ 의식이 없더라도 정형화된 답으로 의식의 허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4.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예시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윤리에 해당하는 예시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우리 사회에서 줄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새치기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다.

㉡. 자신의 믿음에 의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였다.

㉢. 간통죄가 폐지됐음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간통을 하지 않았다.

㉣. 법률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물에게 의미없는 고통을 주면 안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알파고'는 바둑에서 사람을 이기기 위해 수많은 바둑 기보를 익히는 방법으로 바둑을 학습하였다. 이후, 이세돌 9단과의 경기에서 4:1로 완승을 거두어 그 능력을 보여주었다. 2년후, '알파고'의 후속작인 '알파고 제로'가 개발되었다. '알파고 제로'는 40일동안 바둑을 기보 없이 혼자 익힌 후 기존 '알파고'를 100전 100승으로 이겼다. 압도적인 능력의 '알파고 제로'는 바둑을 독학하였기에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의성'을 구현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인공지능 모두 바둑에서만큼은 기보 스타일이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될 정도로 매우 뛰어나지만, 2:2 팀전 바둑경기에서는 다른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① '알파고'는 바둑을 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약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 ② '알파고 제로'는 바둑을 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강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 ③ 창의성을 인간 유사성의 기준으로 정한다면 '알파고 제로'는 의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반하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④ 타인과 소통 가능 여부를 인간 유사성의 기준으로 정한다면 '알파고 제로'는 윤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 ⑤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모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야한다.

6.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혼용(混用)되는
- ② ㉡: 포함(包含)하는
- ③ ㉢: 추가(追加)할 수 있는
- ④ ㉣: 양립(兩立)할
- ⑤ ㉣: 제정(制定)된